석굴암 목조전실 잘잘못 논쟁

강우방씨 '보수의 실책' 주장에 성낙주씨 '보존의 중요성'으로 반박

석굴암에 목조전실이 있었나 없었나, 석굴암 돔을 둘러싼 시멘트겹은 왜 해체하지 않나 등 석굴암 보수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 논쟁은 강우방 관장(국립경주박물관)이 6월1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신음하는 석굴암을 그냥 둘건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성낙주씨(노원중 교사)가 〈인물과 사상〉 7월호에 '강우방 관장은 석굴암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성 교사는 강 관장이 60년대 석굴암 보수가 석굴암 보존의 원칙과 철학이 결여된 산물이라며 일제시대 때 석굴암 돔을 덮어씌운 시멘트 콘크리트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층으로 그 위를 다시 덮은 것과 전실에 목조지붕을 씌운 것은 당시 보수의 실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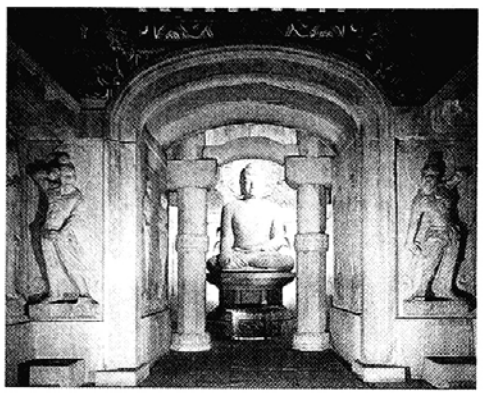
성 교사는 "강우방 등 목조전실 철거론자들은 전실을 노천에 방치해 놓은 사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목조전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조전실을 철거하면 엉터리 공사로 석실 내부에 이끼가 끼고 불상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들이 비난해온 일제의 보수공사 때로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라며 "목조전실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거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벗기는 것이 중요한지 석굴암 조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다.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겹과 전실의 문제는 1913부터 3년여에 걸쳐 일본 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1차 중수로 인해 불거져 나온 일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 3개년의 석굴 공사가 착수돼 일본이 시공한 석굴을 그대로 두고 그위에 새로운 돔을 건설하고 개방됐던 전실에는 목조옥개를 얹었다. 당시 석굴암 보수 공사의 담당 수석관이었던 황수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60년대 전실 건립 당시 석굴을 찾았던 부근 마을의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옛날에 목격했던 전실규모와 새건물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모두 환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석굴암에 대한 오랜 문헌이란 겨우 〈삼국유사〉의 짧은 기록 뿐이기에 석굴암 전실 존폐에 대한 논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함산 석굴암. 일제시대 세차례에 걸친 중수로 씌워진 시멘트와 60년대 보수로 목조기와를 얹은 전실은 이후 학계의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최선의 내용을 주고 받으려면 자기문화와 상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세계문화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연구태도는 한국 내 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왔다."

최근 발간된 〈열린지성〉 5호에 실린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반성과 전망'에서 김인환 교수(고려대)는 "한국철학사 연구는 삼국·고려시대에는 불교에 치중하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치중해왔다. 삼국 유학과 고려 유학을 무시함으로써 신라시대에 〈주역〉이 교육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불교를 무시함으로써 태고 나옹에서 청허 편양을 거쳐 설봉 백파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선의 계보를 기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불교·유학 연구 시각 동아시아로 넓혀야 사실에 접근 가능"

김인환 교수 "한·중·일 학술용어사전 필요"

화엄종·천태종·정토종의 변화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학연구와 불교 연구는 동아시아를 단위로 삼지 않으면 사실에 부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유학과 불교는 20세기의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사유양식이자 믿음체계이며 생활방법이다. 김 교수는 경학사는 20세기의 경학연구를 포함해야 하고 선사(禪史)는 20세기의 선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세기의 〈법화경〉 연구, 20세기의 〈주역〉 연구, 〈자본론〉 수용사 등의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했다.

김 교수는 또 원효를 한국철학사를 움직이는 주인공들 중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그를 독창적인 사상가로 찬양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흔히 원효의 설로 인용되는 인과사슬은 원효의 창안이 아닌 〈기신론〉 저자의 견해이고 원효는 그러한 인과사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첨가했을 뿐이기에 원효 연구는 〈기신론〉 연구사에서 원효가 차지하는 위상의 해명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연구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중국·일본 대비(對比) 학술용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다. 불교 용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까지 포함한 용어대비사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연구는 한중일 세언어에 내재한 공통요소를 확대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석·박사 논문 인터넷 검색

불교학 논문 363편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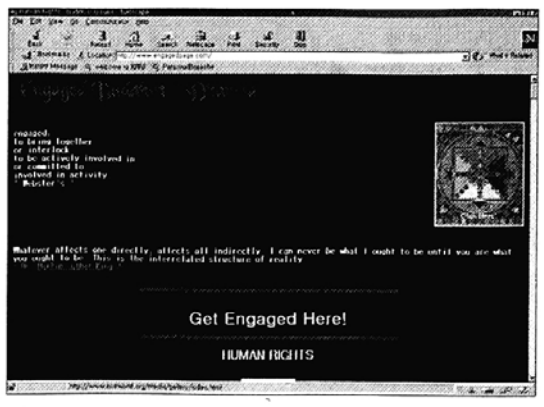
'아카데미 인프라' 사이트 화제

국내외 석·박사학위 논문을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집이나 연구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화제다.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트 아카데미 인프라(www.acain.co.kr)는 국내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논문 목록 뿐만 아니라 초록, 원문 등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논문 복사를 주문받아 배송해 주는 논문복사 주문 사이트들은 많이 있었지만 논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카데미 인프라가 처음이다. 아카데미 인프라에서 불교를 검색어로 줄 경우 검색되는 석박사 학위 논문은 363편. 전공자도 불교에서부터 철학 사회학 체육학 유아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불자 네티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카데미 인프라는 일반 복사서비스가 저자의 사전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원칙적으로 저자와 저작권위탁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논문을 제공하는데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저작권 이용료로 지불하는 등 적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설한지 1년이 좀 지난 현재 가입회원수는 3천5백여명, 검색 건수는 5만4천여건을 넘어섰다. 논문목록 검색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네티즌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앞으로 국내 유일의 학위논문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참여불교 '달마'

종교·인종 초월 사회운동 집중소개 '미얀마 대인지뢰 제거운동' 큰 반향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여불교 사이트는 단연 '달마(Dharma)'다. 인터넷 검색엔진 '인포식', '라코스' 등에서 네티즌이 가장 즐겨찾는 사이트 가운데 수년간 수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달마'에는 종교와 인종을 넘어선 불자 사회운동가들의 활동이 집약, 소개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는 내적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의 모든 유·무정물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에 힘입어 종교와 인종을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는 티벳과 미얀마등 불교국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핵실험 고발운동', 멕시코의 '빈민퇴치운동', 아프리카의 '인종차별거부운동' 등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얀마의 '대인지뢰 제거운동'에 대한 정보는 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달마' 사이트 후원자이며 대인지뢰 제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하 고사난다스님(캄보디아)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선 땅에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해야 하고, 이와 함께 마음의 지뢰, 즉 삼독심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코너에서는 세계 각국에 묻혀 있는 대인지뢰의 추정치와 사상자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티벳 주권운동'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교계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다. 이 코너에서는 98년 99년 달라이 라마의 신년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고, 티벳불교계에서 매년 봉행하는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또 판첸라마의 복권을 위한 티벳망명정부(인도 주재)와 각국 불교계의 노력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창가학회', 영국의 '불교윤리', 캐나다의 '목소리', 스리랑카의 '종교·인종 화합'등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를 소개, 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 인권·빈민·환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글과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크 에드워즈(사진작가)가 인도 캘커타에서 2년간 거리부랑아와 고아들을 소재로 찍은 사진 50여점, 1948년 유엔에서 제정한 '인권선언문', 19세기 중엽 "자유시장은 '부(富)'만을 좇는 사회주의 논리"라고 역설했던 미국의 사회운동가 노암 촘스키의 연설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 참상을 담고 있는 윌리엄 로저스 주니어가 1996년 하와이 문제를 주제로 〈워싱톤 법 리뷰〉지에 개재했던 '정의감과 의식의 공정성(The Sense of Justice and the Justice of Sense)' 등이 열람해 볼직한 정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engagedpage.com

"붓다는 석가모니뿐 아니라 깨달은이 총칭"

조준호씨 빨리문헌분석통해 주장

"붓다라는 칭호가 석가모니 일인만을 중심으로 확고해지자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두 붓다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일국토 일불설'이 강조되었다. 절대적인 붓다 개념인 일국토 일불설은 초기 불경 제작자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들의 탁월한 종교 문학적 상상력과 구상력은 고의적으로 모든 베다의 신들을 붓다의 시종으로 만들었으며 독각 불 전륜성왕 과거불·미래불 개념 보살 개념 등을 통해 붓다 개념을 더욱 격상시키고 있다."

인도 델리대에서 '붓다 개념에 대한 연구:빨리 둔헌에 나타난 일국토 일불설에 대한 비판'으로 올해 박사학위를 딴 조준호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조씨는 "깨달은 이를 가리키던 붓다가 초기 불교문헌에서 석가모니 붓다에게로만 집중된 것은 붓다를 새롭고 유일한 존재의 영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유일한 존재로서 붓다 개념은 32상 80종호라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삼명 육통 십력 사무외심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초기 불교경전에서 묘사하는 붓다 개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성들의 대부분은 아라한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초기 불교경전이 형성되기 전의 최초기 붓다 개념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많은 붓다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준호씨는 결론지었다.

'72시간 계획' 평화운동 전개

URI 미국회의 열어

세계종교대표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종교연합준비기구로부터 종교연합에로의 변화이행 시작(From the URI to the UR Beginning the Transition)'을 주제로 제 4차 세계종교연합준비기구(URI) 세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세계회의에서는 금년말부터 내년초에 걸쳐 전개할 평화운동인 '72시간 계획', 2000년 6월에 있을 종교연합(UR) 헌장조인과 창립식, '종교연합연구소' 및 기금조성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한국지부(URI Korea)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진월스님(동국대 강사)은 곧 한국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12월31일부터 2000년 1월2일까지 상징적으로 시행될 '72시간 계획'을 남북분단의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 판문점 등지에서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들이 모여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과 화해 및 통일정신을 고취시키는 평화집회를 갖고 전국의 다양한 종교기관에서도 동시에 평화의 종타종을 논의할 방침이다.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는 원이시는 보살 초연시오 원력수심시오. 연연애애로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